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서외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부안군은 8월 9일자 부안읍 서외리 소재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해당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청하여 그간 예식장 등으로 사용돼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 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인근 서외리마을 등 주변 지역 주민 500여명이 연명한다수인 민원을 부안군에 제기하였다.

정읍시, 23일까지 빗집 환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정읍시는 오는 23일까지 2024년 빗집환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빗집환원사업은 논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벼 재배 농지에 빗집을 절단해 농경지에 환원하고 가을갈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지역 내 벼 재배 농가이며, 빗집을 절단해 농경지에 환원할 경우 1ha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월에 신청된 농지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빗집 환원 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토양 탄소 축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33만명 기록

체험형 관광인프라 확충, 사계절 체류형 정책 추진 성과 실현

대단위 연수원 운영 통한 생활인구 확대·인적교류 산실 발돋움

정읍시가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시는 1분기 평균 33만명을 기록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생활인구를 보유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등록인구(주민등록 및 등본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해 산정된다.

시는 33만명의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22만 4000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특히 1일 단위 체류인구는 1월 9만 5000명, 2월 10만 8000명, 3월 11만 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체류인구 확대의 배경에는 로컬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이 큰 계기로 오며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그동안 내장산과 구절초 등 자연 자원에 의존한 가을 한철 관광도시

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집중해왔다.

봄에는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벚꽃축제(17만명)를 시작으로 여름 물빛축제(9만 5000명), 가을 구절초축제(30만명)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최한 것이 생활인구 확대에 주효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읍전 일원에 미로분수와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인근 이안산 일원에는 정읍의 문화유산인 현존 최고 백제기묘 정읍사를 모티브로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형물, 프로젝터 매핑 영상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정읍사 달빛사냥꾼'을 야간 경관 거점으로 신규 조성해 방문객들의 도심권 유입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국민여가 캠퍼스 도내 최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 가족과 함께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워터파크 음악분수, 체험형 힐링공간 임산물 체험단지과 목재문화 체험관 등이 가족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순환열차, 동화마을 테마공

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계절과 상관없이 온 가족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에 있는 연수원들도 생활인구 확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개원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는 약 2만평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528석 규모의 강의실,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 216석 규모의 대강당 등 교육시설과 11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생들은 연간 5000여명에 달하며, 지역 홍보, 관광,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호남권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호남권 정책협의회 개최 장소'로 활용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적 싱크탱크 및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핵심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연간 6000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기안전인재개발원과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운영 및 설계에 착수해 연수원 메카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선8기 전반기 고창군정 성과 '군민은 행복, 지역엔 활력'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예산 1조원 시대 눈앞·청렴문화 확산 등

고창군이 민선8기 후반기에는 공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와 관광의 산업화로 돈버는 관광 실현, 고창형 소득향상 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8기 전반기 고창군의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도 했다.

먼저,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의 결실로 2023년 국가예산 1784억(전년대비 7.4% 증)을 확보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한데 이어, 2024년 국가예산은 1910억(전년대비 7.1% 증)이라는 역대급의 성장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고창군에선 민선 출범이후 첫 번째 최우수상 수상으로, 민선 8기 '실현가능한 공약',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고창군은 고창방문의해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세계유산 7개 보물을 활용한 참신한 시도로 농촌 지자체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기관장 적극행정 추진의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도 및 교육,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고창군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을 포함하여 8892억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3%(1470억원) 늘었다. 또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44억원 상당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7월31일 올해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4개 사업 18억원을 확보를 비롯해, 민선 8기 특교세 사업 총 14건에 76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군민행복민원 상담사 제도 운영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이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와 불공정한 침해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 정읍제일고에 학교복합문화센터 조성

정읍시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이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읍교육지원청은 협력해 총사업비 172억 원(국비 88억, 시비 84억)을 들여 정읍제일고등학교 내 1만 4909㎡ 면적에 '정읍 학교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동 교육문화관에는 지하 주차장, 공연장, 진로진학상담실, 웹툰교육실, 영재교육실,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이 3층 규모로 들어선다.

2동 다목적재능관은 체육관, 식품가공과, 동아리실, 목공실, 헬스장 등이 2층규모로 신축된다.

3동 체육관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



이다.

또한 주변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150면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인도를 개설한다. 또한 학생과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어울림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학원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합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가력선착장,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된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사업 시행으로 폐쇄된 부안군 6개 어항의 대체 어항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부안군은 이번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을 위해 부안수협과 협약하여 위관장 등 어항기능시설의 민자사업을 확보하고, 어항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의 어항기능과 해양관광·레저·신산업 등 새만금과 가력선착장을 융복합 거점으로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어항기본시설의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점, 외래어선 및 현지어선의 이용(입출항)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으로 그동안 기본시설만 갖춰있어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던 어민에게 개선된 어업환경을 제공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가력항과 새만금 지역을 찾는 낚시·관광객들의 관광·레저 수요도 충족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륙과 외곽을 연결하는 거점 항으로서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5회 섬의 날' 행사참석... 지역특산물 홍보

고창군이 지난 8~11일(4일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해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며 내륙도와 대륙도, 유네스코 7가지 보물등 고창군을 적극 홍보했다.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관광 활성화 및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고창군은 유인도인 내륙도의 친환경 생태섬과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무인도인 대륙도의 무인도체험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홍보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인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갯벌, 고인돌, 세계지질공원, 관소리, 농악,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등 다양한 자연관광자원도 알렸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주요관광지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해 관광객들에게 고창군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Image of a green landscape with trees and a blue sky.